■ '최악 황사' 광주·전남 지역민 불편 가중

숨막힌 시민들 서둘러 '집으로'

유명산·유원지 등 한산…상가 손님 줄어 울상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이틀째 광주·전남 전역을 뒤덮을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유치원, 초·중·고교는 2일에도 황사경보가 계속 발효될 경우 일제히 휴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휴일인 1일 지역민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악 황사 이틀째 지속=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오후 7시 "이날 오후 12시40분을 기해 광주·전남지역에 발효된 황사경보가 2일 오후 늦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계속 남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부지방의 경우 2일 오전 중 황사가 약해지겠지만 광주·전남은 오후 늦게나 돼야 미세먼지가 기준치(80~10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모든 초·중·고교 휴업=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소방방재청과 기상청과 협조해 황사에 따른 학교운영 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시·도교육청은 2일 새벽 5시 현재 황사경보가 계속되면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황사주의보로 한 단계 낮춰질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실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국황사 임시휴교'는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시·도교육청은 임시휴업 결정 등을 2일 새벽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지만, 기상청이 2일 오후까지 황사경보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해 임시 휴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불편 속출=휴일인 1일 지역민들은 호흡기 질환 등을 우려해 아예 외출을 자제했다. 각 가정에서도 미세먼지를 쓸어내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벌였으며, 주차된 차량 표면에는 뿌연 흙탕물이 번져 운전자들의 볼멘소리를 쏟아졌다.

외출한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회사원 김의태(32·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마스크라도 사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이미 품절돼 눈이 따갑고 잔기침도 나오지만 참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충장로 1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문미영(여·35·북구 운암동)씨는 "진열해둔 신상품에 먼지가 내려앉고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유명산과 유원지도 한산했다. 광주 무등산의 경우 지난 주말 3만여 명이 찾았지만 이날 1만2천여 명이 산을 찾는데 그쳤다. 광주시 북구 생룡동 패밀리랜드도 평소의 4분의 1수준인 1천여 명만 입장했다.

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를 빠져나간 차는 1만3천143대로 지난달 25일 2만2천540대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이날 오후 1시 KIA와 현대의 수원구장 경기 등 전국 4개 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시범경기도 모두 취소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원봉사 우리에게 맡기세요"

광주천 가꾸기와 김치축제 홍보 등 지역행사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설 '2007 청소년봉사단' 발대식이 1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황사 테러' 건강관리는

황사가 몰려오면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황사 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외출시에는 보호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궈 준 후 양치질 등을 하는 게 좋다.

황사는 콧물·재채기·코막힘·코 가려움증·두통 등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는 주의해야 한다. 또 황

외출 가급적 자제하고 눈 비비지말고 씻도록

사가 눈에 들어가면 각결막 상피세포를 덮고 있는 막을 자극해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실내는 공기정화기로 정화하고 가습기로 일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

황사 때의 건강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외 운동 자제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않고 깨끗한 물로 씻는다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고 고단백질 위주의 영양식을 섭취한다 ▲외출 후 아이들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씻는다 ▲뚜렷한 원인 없이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호흡기 내과를 찾아 검진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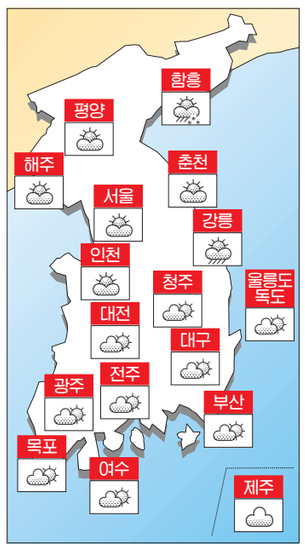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한 먼지 바람

흐린 뒤 오전에 개겠다.

4월 2일 (음 2월 15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린 뒤 갬	6~12℃
목 포	흐린 뒤 갬	6~11℃
여 수	흐린 뒤 갬	7~11℃
완 도	흐린 뒤 갬	7~12℃
구 례	흐린 뒤 갬	4~13℃
해 남	흐린 뒤 갬	5~12℃
장 흥	흐린 뒤 갬	5~12℃
고 흥	흐린 뒤 갬	5~12℃
순 천	흐린 뒤 갬	4~13℃
영 광	흐린 뒤 갬	4~11℃
진 도	흐린 뒤 갬	6~12℃
전 주	흐린 뒤 갬	4~11℃
남 원	흐린 뒤 갬	3~12℃
정 읍	흐린 뒤 갬	4~11℃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3.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4.0m

목 포 밀물 02:00 14:19 썰물 07:19 19:37
여 수 밀물 09:09 21:24 썰물 02:55 15:09

▲해뜸 06:19 ▲해짐 18:54 ▲달뜸 18:36 ▲달짐 05: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날 씨						
최저/최고	1/11	2/17	2/19	5/18	6/17	5/18

일반학과 출신 교직 진출 축소 부전공자 교사자격 취득 폐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일반학과를 통한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크게 축소돼 교사자격증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과별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중등교사 양성과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게 되면 2008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자 수가 9천929명으로 2006년(1만5천379명)에 비해 5천400명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5천400명은 연간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개선안은 또 부전공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복수전공으로만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30학점만 이수하면 됐지만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얻으려면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현직 교원에게 재교육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연합뉴스

광주 고입 연합고사 부활 검토

안순일 교육감 "학력격차 줄이게 내신과 합산 반영"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990년대 중반 폐지했던 고입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간 학력격차 심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고입 전형에서 중학교 내신성적과 연합고사 점수를 일정 비율로 합산해 반영하는 것이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한때 고입 연합고사가 중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폐단이 크다며 앞다퉈 폐지했었다. 하지만 연합고사 폐지 이후 중학생들의 실력 저하가 두드러짐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이 연합고사를 실시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재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부활 움직임이 거세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 답변에서 "내신과 고입 연합고사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고입 선발의 공정성 도모,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학교 간 학력격차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학력저하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경기·전북·제주·충남·전남·강원도, 울산·포항시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연합고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사와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고입전형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선 고교에서 신입생들이 중학교 과정의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다시 가르치는 등 중학교 학생들의 실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실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실력 광주'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라도 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광주지역 중학교 간 학력격차가 심해 내신성적 76.8% 이내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못하는 학교의 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연합고사 점수를 합산 반영하면 고입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학생들의 실력도 더불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3不정책 폐지해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나서 서울대 입시 전형의 향배가 주목된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현 단계에서 3불정책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다만 대학 스스로 입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율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규제는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옳다"고 말했다.

입시 정책의 입안(立案)과 실무를 담당하는 입학관리본부가 3불정책 폐지를 거론한 것은 서울대가 장기적으로 3불정책과 궤를 달리 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